

데스크 시각



**윤영기**  
체육부 부국장

광주 AI페퍼스 여자 프로배구팀 김형실(71) 전 감독이 전화를 걸어왔다. 기자가 최근 연락한 지 하루 지나서다. 배구 코트에서 삶의 전부를 보내다시피한 그는 '이제 자유인이라 종종 전화를 집에 놔두고 다니다'며 씩씩하게 웃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 돌연 감독직을 내려놓았다. 시즌 개막 후 10연패.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옥쇄를 택했다. "연패는 각오한 일 아니냐"고 묻자 "월로 소리 듣는 사람이 어른 노릇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말꼬를 흐렸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노장의 마지막 결의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에서 반전의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페퍼스는 이경수 감독 대행 체제에서도 7패를 더 보태 17연패까지 갔다. 인삼공사의 한 시즌 최다 연패(20연패)를 목전에 둔 정도로 추락했다.

열정·패기만으로는 한계

페퍼스 주장 이한비는 지난 31일 도로공사를 꺾고 연패에서 탈출하자 눈물을 퐁퐁 흘렸다.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음 경기에서 현대건설에 0-3, 셋아웃 패배를 당한 후 2패를 추가해 현재 3연패 중이다. 팬들은 고개를 갇혔지만 어쩌면 이한비의 눈물을 올 시즌에 더는 못 볼 수 있다. 현재 전력상 패배를 늘리긴 쉬워도

페퍼스 감동 배구 업그레이드하려면

승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게 배구계 중론이다. 김 전 감독의 말처럼 '프로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올 시즌에 영입한 센터 이고은과 리베로 오지영을 제외하고 타 팀으로 옮기면 정규 멤버로 뛠 선수는 없다. 창단 2년째인 페퍼스에서 뒀던 것이 사실상 프로 생활의 전부인 이들에게 승리를 바라는 것은 고통을 주는 일일지도 모른다.

페퍼스는 코트에서 눈물겹도록 싸운다. 지름 20cm, 무게 270g 짜리 공을 걷어 올리기 위해 부서져라 몸을 던진다. 평균 시속 70~80km로 쫓히는 강서브도 견뎌 낸다. 코트에 쏟아낸 땀과 열정은 페퍼스가 단연 1위다. 왜 이기지 못할까. 선수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의 최대치를 보여 주고 있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1승 20패다. 모든 스포츠가 '흐름'을 타지만 배구는 유독 더하다. 페퍼스는 좋은 흐름에도 안절부절이다. 기량은 물론 경기 운영 노하우와 노련미가 부족해서다. 진검승부를 벌여야 할 20점에 선착하고도 막판 5점을 남겨두고 번번이 밀리고 진다. 기선을 잡고도 허둥대다 추월당한다. 10점대 점수에 그쳐 허망하게 세트를 내주곤 한다. 옆치락 뒤치락 혼전 상황에서 물줄기를 돌릴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하지만 김연경 같은 게임 체인저는 없다.

페퍼스는 창단 당시 젊은 선수들을 주축 삼아 3개년 계획으로 팀을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실제 아웃사이드 히터(Outside hitter: 래프트) 이한비와 박은서, 박경현의 성장에 눈부신다. 두 구단 감독들도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가 아니라 미래 전력이라는 게 한계다. 가장 큰 문제는 페퍼스의 연패가 쌓이는 만큼 팬들의 사랑도 식어간다는 것이다. 팬들에게 마냥 승패를 떠나 배구 자체를 즐기라고 권하는 것도 염치없는 일이다. 이제 플랜 B를 가동할 시점이 됐다. 미래 자원을 키우고 현재 전력을 보강하는 두 트랙 전략이다.

페퍼스는 시즌 중반을 넘긴 상황에서 감독을 서둘러 뽑지 않고 대형 체제로 시즌을 마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동의한다. 당장 감독을 뽑는다고 전력에 큰 변화가 올 리 없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봄 배구가 끝나면 사실상 트레이드 시장이 열린다. 기약 없이 감독 선임은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다. 다행히 올 시즌을 끝으로 김연경을 비롯해 20여 명이 자유 계약 선수(FA) 자격을 얻는다.

최고의 팬 서비스는 승리

페퍼스가 보강해야 할 전력은 배구 팬들이 더 잘 안다. 취약 포지션인 아웃사이드 히터, 미들 블로커(Middle Blocker: 센터)다. 아웃사이드 히터 김연경을 잡으면 금상첨화다. 전력을 극대화하면서 젊은 선수들을 코트에서 독려하고 기량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리더다. 스타 선수 부재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팬덤을 이끌 수 있는 장점도 뺄놓을 수 없다. FA 시장에서 대어를 잡는다면 중위권 성적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페퍼스를 창단한 페퍼저축은행은 광주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유소년 배구 교실을 꾸준히 지원하고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역 고교 선수를 입선시키는 등 선수 연계 육성 생태계도 구축했다. 지역 외교 구단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최고의 팬 서비스는 승리'라는 프로 스포츠의 본질에 다가설 때가 됐다. 팬들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중꺾미'(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라며 선수들을 위로하는 게 일상이 되면 곤란하다. 이제 페퍼스가 팬들에게 희망과 힐링을 안겨줘야 하지 않을까. /penfoot@kwangju.co.kr

은편칼럼



**김진구**  
행복학교포럼 대표

20% 혁신학교

느낌이다. 비어서 끄그러지고, 구석지에서 녹슬고, 여기저기서 채인 종말 같은 단어다.

2010년부터 시작한 광주시교육청 민선 3기는 12년이었다. 긴 세월 교육감의 혁신 사업 중 하나가 '빛고를 혁신학교'였다. 이름하여 가치 혁명적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교육 도시, 광주에 있는 학교의 구태를 벗기겠다는 것이었다. 처음 혁신학교란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이름의 무게 때문이었다. 10년이 넘도록 운영했으니 팍팍한 숫자놀이 같지만 이제 내막을 공유해 보자. 혁신학교란 간판이 이락사나 일속산방 같은지 아니면 강동 전세인지 말이다.

혁신학교는 2011년,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로 시작했다. 새로운 학교 문화 조성,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학부모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 등이 주요 활동 내용이다. 한번 지정되면 4년간인데 2년마다 중간 평가를 받지만 도중에 또는 4년 후 재신청에 탈락한 학교는 없었다. 그래서 12년간 계속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2022학년도 현재 초중고 66개 학교가 지정되었다. 320개 학교 중에 20%이다. 66개교를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40개교, 중학교 19개교(모두 공립), 특성 학교 4개교(모두 사립), 일반학교 1개교(개교 때 지정), 특수학교 2개교(공립)이다. 초중학교는 사립이 없는데, 특성학교는 여상고 3개교와 공업계 1개교 모두 사립이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1개 학교인데 개교와 함께 미리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문을 열었을 뿐 그 외 공사업 인문계는 없다. 준중고 배려, 소통과 참여로 교육 정상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혁신학교에 대다수 학

교가,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가 왜 신청하지 않았을까? 학교 문화와 수업 개선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지금도 혁신학교 운영에 애쓰는 교직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직원의 50% 동의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혁신학교로 지정해 주는데도 이 정도에 머물렀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교사 초빙, 유보, 직원 추가 등 인적 지원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예산을 주는데도 왜 기피했을까.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평가를 거쳐 혁신학교의 장점을 다른 학교로도 일반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광주 시 모든 학교의 재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혜택을 보는 것이다. 소수의 학교에 12년간, 400억 원 가까이 쓸 아무었는데, 담장 하나 사이인 그 옆 차별받은 학교는 무슨 학교라고 불려야 하는가.

일기 내내 20% 그들만의 리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꺼리는 교원·학부모가 많아서 2023년에 새로 신청한 혁신학교는 없다. 혁신학교와 '학교 업무 정상화' '담임 업무 제로화'란 나절한 간판만 남긴 채 광주 교육은 강동 전세처럼 되었다.

민선 4기 광주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은 '자치 학교'다.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다. 8개 주체 중에서 자유롭게 신청하면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며 1년 단위로 운영한다고 한다. 교육청은 지원하되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107개 자치 학교가 새 학기부터 출항한다. 기리끼리 혁신 학교가 아닌 더불어 자치 학교가 되어 광주 교육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기고



**강향림**  
수필가

산책

식당·커피숍·공원 등 연인, 가족이랑 나온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도 제각각이다. 스키치는 사람들에게서 친근한 감정을 느낀다. 횡단보도를 건너 바닷가 산책길로 접어든다. 익숙한 바다 냄새가 눈과 귀로 밀려든다. 숨을 고르고 어둑한 바다 수면에 비친 불빛을 쳐다본다. 돌 틈새 길고양이들이 머물던 장소가 여기쯤이다. 새끼 고양이가 지금쯤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다. 먹이 한 번 쥐 본 적 없던 내가 새끼 고양이들의 안부를 궁금해 하니, 혼자 머쓱해진다. 버스 정류장 맞은편 귀퉁이 공간 호박밭 초록 농름들이 썰렁하다. 잎 끝이 마르거나 기울어 가는 게 성글어 보인다. 초록 잎들이 등성들성처럼 작은 발뼌기는 행하다.

바다 물속도 땀가가 빠진 듯 허전하다. 바닷가 해안길 아래 수면에서 헤엄치던 송어 떼가 보이질 않는다. 잠시 어리로 가버린 건지 잔잔한 바다물만 일렁인다. 송어 떼의 흔적을 메우려 가로등 불빛이 수면 위로 길게 늘어져 반짝거린다. 계속 뒤편에는 해안가 조망에 바다는 금빛, 은빛, 색색의 물비늘로 화려하다. 송어 떼가 노니는 모습처럼, 아래쪽 계단 몇 미터 떨어진 자리에서 중간 부부가 낚시를 한다. 무엇을 낚는 걸까? 어두운 바다에 낚시줄을 드리우고 침묵하는 부부의 모습이 답답하다. 그들은 어떤 어신을 기다리는 걸까.

나는 집에서 소호동 바닷가 동동다리까지 거닐거나 선소를 지나 예울 마루 언덕까지 걸었다. 더워지면서 부터 걷기를 중단하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즐깁기를 시작했다. 신발장 서랍에서 빈통대는 즐깁기를 발견한

뒤였다. 머지않아 즐깁기도 며칠간은 쉬어야 했다. 발목에 무리가 왔는지 복숭아뼈 안쪽 인대가 늘어남 탓이다. 중세가 심해진 않지만 얼마간 가볍게 걷는 게 좋을 성실했다.

걷다 보니 동동다리 입구에 다다른다. 요트장까지 바닷가에 설치한 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다리 자체 조명이 화려해 혼자 걸어도 외롭지 않다. 바람에 실린 갯내음이 마음을 들뜨게 한다. 걸다 보니 동동다리 입구에 다다른다. 요트장까지 바닷가에 설치한 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다리 자체 조명이 화려해 혼자 걸어도 외롭지 않다. 바람에 실린 갯내음이 마음을 들뜨게 한다. 걸다 보니 동동다리 입구에 다다른다. 요트장까지 바닷가에 설치한 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다리 자체 조명이 화려해 혼자 걸어도 외롭지 않다. 바람에 실린 갯내음이 마음을 들뜨게 한다.

돌아오는 길, 흰 미니 장미에 눈길은 닿는다. 그런데 땀이 이상하다. 걸기 바깥쪽으로 흰 장미 송이가 없다. 다른 꽃도 아니고 향기를 맡으며 조금 전에 째민 꽃이었다. 즐깁만 행한 게 누군가 꺾어 버렸다. 그 자리로 되돌아온 길지 않는 사이에, 장미 향만으로도 과분한데 아예 꽃을 꺾어 버린 손길이야 아수라다. 그 누군가가 꺾은 꽃에 실종 나지 않기를 바라다면 과몰입이려나. 집으로 가는 내내 길가에 버려진 꽃 냄새가 나타날까 봐 두렵다. 소복입은 장미 귀신아, 내 꿈무늬에 따라붙지 마라.

社說

청년 유출 못 막는 정책들, 실효성 재검토해야

광주·전남 지자체가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음에도 청년 인구 감소 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청년 인구(18-39세)는 2021년 40만 3996명에서 지난해 39만 2484명으로 줄면서 40만 명대가 무너졌다. 전체 인구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28.6%에서 지난해에는 27.4%로 줄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84건의 청년 정책에 18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남의 청년 인구 유출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46만 6684명이었던 청년 인구가 지난해 39만 1309명으로 감소, 5년 새 7만 5000명 이상 줄었다. 그 사이 24%였던 청년 인구 비율은 21%로 감소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1개 인구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등을 합쳐 1조 2883억 원 예산을 쏟아부었다.

지자체의 젊은 층 수혈을 위한 노력은 주거·취업·금융·복지 지원 등 전방위적이

다. 귀농·귀어를 꿈꾸는 청년에게 농장이나 양식장을 빌려주고 수익 원짜리 선박까지 내주는가 하면 청년 마을 만들기도 뒷받침하고 있다. 한 달 이상 농어촌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전남에서 살아 보기' 사업은 높은 호응 속에 정부 사업으로 확대돼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지 못하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지역 청년들을 돌아오게 하지도 못하면서 청년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 해마다 광주 지역 대졸자의 50%, 전남에선 63%가 다른 지역으로 취입하고 있다. 소비와 생산의 주체인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은 경제력 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요인이 된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 봐야 한다. 성과가 낮은 백화점식 사업들은 정비하고 청년들의 접근성과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등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 다시 확인된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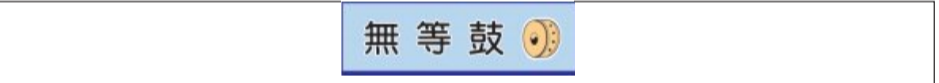
의사와 공공 병원 부족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하루 네 명 이상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 2020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실시한 '전국 시도별 의료 격차 실태 조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시도별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치료 가능 사망률에서 나타난다.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성·연령 표준화를 거친 단위 인구(10만 명)당 사망률로 환산한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남 47.46명, 광주 44.71명으로 전국 평균(43.80명)보다 높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광주·전남에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은 1527명으로 하루 네 명꼴이었다. 300명 이상 공공병원 설치율은 광주 0%, 전남 3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광주의 경우 300명 이상 공공병원이 단 한 곳도 없었고, 전남은 두 곳에 불과했다. 300명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이 0.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1.59명)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전남은 의사 부족과 높은 치료 가능 사망률로 인해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도시 산간 지역이 많고 국립 의과대학이 없어 최상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경실련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하고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광역시도에 100명 이상 규모의 국공립 의과대학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그 최우선 대상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차별 없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출돼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현재 거대 양당에서는 이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헌법에서는 정당의 자유 설립 주위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면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모습과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모습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모습과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모습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석역 대통령 의중)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입법기관인 여당 국회의원들이 행정부 소속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3권 분립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국민의 힘과는 결이 달랐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눈치 보기는 상당했었다. 현재는 이재명 당 대표의 검찰 수사에 맞서 당이 뿔뿔 뿔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표적 수사'에 맞서 정부와 여당, 검찰에 맞서 싸우는 것은 정당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169석을 가진 거대 양당의 존재감이 대

정당 민주주의

표 한 명에게 쏠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진보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당내 소수 의견도, 다양성도 사라졌다. 당내 중진 의원들이 정치 초년생인 윤 대통령과 초선 국회의원 이 대표의 눈치만 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것인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당은 없고, 윤석열과 이재명 두 사람만 보인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 가 나온다. /최권일 정치부 부국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b>金汝松</b>	논설실장 <b>程厚植</b>	편집총괄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주독 신청 배달 안함))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 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정치 부 220-0652	예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경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업무국 220-0551	
사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FAX 222-0195) (FAX 222-0195)	
전남 본부 220-0680		다 자 인 실 220-0536	
		서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